

강동구치매지원센터, 치매특별등급 급여제공 종사자 교육 시행

오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어 경증 치매 어르신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를 위해 올 3월부터 6월까지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특별등급 급여제공 인력 교육'을 시행하였다.

교육 종료 이후 강동구 관내의 기관에서 강동구치매지원센터로 '실제로 이용 가능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이에 이달 22일(화) 치매특별등급 급여제공 인력 교육을 받은 인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및 치매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인지활동'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 시간은 총 5시간으로 2시간의 이론 교육과 3시간의 실습 교육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교육을 준비한 한경혜 팀장은 '치매특별등급 교육 이후에 여러 유관기관으로부터 실제로 운영 가능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의가 많았고, 이번 교육을 통하여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교육 배경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참가 신청은 7월 18일(금) 까지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강동구치매지원센터 02)489-1130으로 하면 된다.